

# 광주시, 2019년 감사운영 계획 발표

## 18개 기관 대상 기관운영 종합감사

### 성과창출 지원 및 시민 중심 추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2019년도 감사운영 방향 및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주요 감사 방향은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성과중심의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 감사를 실시한다. 중점감사 사항은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종합감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 내실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강화 등이다. 광주시는 올해 시 본청 실·국, 북구, 남구, 도시공사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성과 채용 등 인사비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감사한다. 특히 본청 4개 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관행적인 부장당 행위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시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등 시민의 편에 서서 감사를 되짚어본다. 이 밖에도 복지시설과 운수업계 지원 보조금 감사를 통해 투명한 부정수급 근절과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고, 노인보호 구역 안전시설과 경로당 안전관리 실태

및 대형공사 등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직 기강 해이요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감찰 활동을 벌여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시정 구현을 도모해 시민의 자존감을 높인다. 운영될 시 감사위원장은 "2019년은 성과중심 감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겠다"며 "시민 우선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재정격차 완화 건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정문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과 함께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난 29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 수도권 과다한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 역제를 위한 수도권 규제총량제 준수, 중앙 정부의 기능이양 시 재원의 동시 이양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촉구했다.



경찰과 몸싸움하는 현대·기아차 노조 3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노조가 투쟁행위를 벌이고 있는 광주시청에 항의방문 하러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부지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건의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공동건의문 발표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227-0000

## 전남도, 첨단 바이오·헬스케어산업 R&D 온힘

### 화순백신산업특구서 생물·의약산업 업무보고·현장 간담회 가져

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올 한해 첨단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연구개발(R&D)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라남도과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31일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생물·의약산업 업무보고와 연계해 백신·의약 핵심기관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전남 생물산업의 2019년 업무계획과 백신산업특구의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836억 원을 들여

지고 있는 국가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 연구소 등 백신·의약산업 핵심 인프라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전라남도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의약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의약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의약산업 고도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역

동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사업인 ▲항암 면역세포·줄기세포 생태계 구축 ▲글로벌 백신 제품 생산 지원기지 조성 ▲천연물 기반 의약품·향장·기능성 식품 개발 ▲의약·치료·휴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계획한다. 전라남도는 장기적으로는 숲·강, 섬·바다 등 자연 치유공간과 화순전남대병원 등 종합병원, 국내 최대 요양병원 집적단지 기반으로 암 치료·요양병원·기능성 식품·치유·휴양'을 융합한 의료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제공한다. 여기에 항노화연구센터, 국립치매행복마을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 '광주형 일자리' 광주·전남 각계 환영 목소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현대자동차와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체결에 광주와 전남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당·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상 당사자인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가 시대적 소명을 갖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줘 소중한 결실을 보았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자동차산업에서 다른 분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목받은 광주형 일자리가 수많은 난관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을 담아 노사민정의 대타협으로 열매를 맺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송갑석 위원장은 "광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고용 악화와 낙후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줄 새로운 공정경제 실현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광주에서 만들어 낸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국가 경제 혁신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실천적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하루빨리 확실하게 자리 잡아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새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5개 구청장도 성명을 내고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 주

민주평화당 광주시장도 논평을 통해 "노사민정 합의와 지역공동체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로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넘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평등 발전의 사례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일선에서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노사 상생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보아 광주가 미래 자동차 선도시로 도약하고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 광주시, 시립공원묘지 성묘 종합대책 추진

### 영락공원 추모관에 임시분향소 44곳 마련, 상황근무반 운영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시립묘지를 찾는 시민들의 편안 한 성묘를 위해 시내버스 증차와 주차, 교통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로 성묘객들을 맞이 위해 2월1일까지 묘역 청소와 별초,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쓰레기 수거 등을 마무리하고 영락공원제1·2추모관에 임시분향소 44곳을 추가 설치한다. 또 성묘객들을 위한 안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2월1일 오후 4시에는 영락공원 내 유족 동산에서 합동추모제를 열고 연휴 기간 중 5개 반 75명으로 구성된 상황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명절 당일인 5일에는 화장로 가동을 쉰다. 광주시는 설 연휴인 2일부터 6일까지 성묘객 13만여 명이 시립묘지묘지와 영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성묘객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지원15, 용전86, 518번 등 3개 노선에 대해 23대 199회 증회 운행한다.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